

2. SOC 투자 중심의 내수 진작 방안

- (필요성) IMF 자금 지원 결정 이후 극도의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책이 필요함
- (효과) SOC 투자 사업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실업 감소 효과가 큼
- (방안)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문이라도 민영화하거나 외국 업체에 시장을 개방함
- (과제) SOC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

○ 내수 확대의 필요성

- 최근의 경제 상황은 경기 하강기와 겹친 IMF 요구 정책 수행으로 인해 극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 -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, 내수는 위축 단계를 넘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
 -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, 빠른 시일 내에 내수 부양책이 시행되어야 함
 - 그러나 실질 및 명목 소득의 감소와 위축된 소비 심리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SOC 투자 확대와 같은 별도의 내수 부양책이 요구됨

○ SOC 투자 확대의 효과

- SOC 투자 사업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큼
 - 건설, 기계, 철강산업 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
- 이것뿐만 아니라 실업 감소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
 - 고용 유발 효과가 커서(1조 원 투입시 연간 약 4만 명의 고용 창출) 2월 현재 5.9%에 달하는 실업률 증가세를 둔화시켜 실업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음
- 또한 물류 비용의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

○ SOC 투자 확대 방안

- 정부와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
 - IMF의 재정 지출 축소 요구로 인해 SOC 투자 예산이 1조 1,000억 원 이상 삭감된 데다가, 정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 자본의 유치 역시 수익성 확보 문제로 부진한 상황임
 - 이에 따라 98년 SOC 투자비는 정부 지출 및 민자 유치를 합하여 15조 원(약 100억 달러)에 불과하여, 연간 투자 소요액 85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임(<표> 참조)
 - 따라서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침체된 SOC 투자 사업을 활성화시

키고, 동시에 외환 보유고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

<1996~2010년간 우리나라 SOC 투자 소요 추정액>

(단위: 10억 달러)

전 력	도 로	통 신	주 택	교 통	기 타	합 계
125	265	50	299	99	355	1,193

자료: Public Works Financing, 1994.10.

-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문이라도 민영화하거나 외국 업체에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 도로, 철도, 통신, 전력, 가스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이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에 의해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 - 따라서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으로 경쟁 체제를 형성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멕시코의 경우에도 94년의 외환 위기 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업 및 국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
 - IMF와의 협의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,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이것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실업 문제 해결과 국내 경기 부양을 이루었음

○ 향후 과제

- SOC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
 - 그동안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말미암아 경부고속전철, 청주국제공항, 광양항 등과 같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음
 - 따라서 내수 진작을 위한 SOC 투자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, 자원 및 원자재 조달, 공사 감독, 경영 및 사후 관리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
-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
 -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은 외국 자본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, 각종 규제 및 수익성 확보 불투명도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임
 - 따라서 SOC 투자를 위한 외국인 자본 유치의 경우, 규제 혁파와 일괄(one-stop) 서비스 체제의 조속한 구축, 그리고 환위험 방지 등의 방안이 필요함
-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함
 -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20% 전후 수준인 반면, SOC 민자 유치 사업의 수익률은 10%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SOC 사업에 투자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음
 - 따라서 수익률을 최소한 15%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거나,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경우 부대 사업을 통한 수입 확대를 허용하여야 함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